

제멋대로 견인 비용… 사고 운전자는 ‘봉’

소비자원 신고 ‘운임 과다 청구’ 73.7%로 최다

차량 파손·의사에 반한 견인 등 불만 사례 속출

지난 휴가때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한 정보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가 오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정 씨는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견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운송기사는 소비자들의 없이 사고차량을 구난처리 후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자사 차고지로 견인하고 81만5000원을 청구했다. 정씨가 황당해 이익을 제기하자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주지 않겠다고 운송기사는 역치를 섰다. 그는 어쩔 수 없이 7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받았다.

정씨처럼 자 견인서비스와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토교

■ 자동차 견인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 (1~7월)	합계 (1~7월)
건수	502건	536건	324건	1,362건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밖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



견인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으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만을 만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운전자 80% 가짜 석유 의심한 적 있어

소비자원 1000명 설문조사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 주의

자가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주유 시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을 의심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사는 20세 이상의 자가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주유 소비자의식 및 피해경험’을 설문한 결과, 79.3%가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의 주유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74.4%)은 의심만 하고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짜 석유란 석유에 다른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일컫는 것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 석유의 제조, 보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하는 석유에 대해 의심해본 소비자 중에는 가짜 석유(9.4%)나 정량 미달 주유(6.5%)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과반수(60.6%)는

주유 후 차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5.2%)이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짜 석유에 대한 소비자 의심은 실제 신고로도 이어져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접수한 의심 신고는 7천494건에 달했다. 이 중 11.1%는 조사 결과 실제로 가짜 석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주유 후 소음이 매연이 심해지고 성능 저하가 나타나 가짜 석유 주유가 의심되면 석유관리원(☎1588-5166)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처에 가짜 석유 및 정량 미달 주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주유소는 이용에 주의하고 1단위나 천원 단위로 주유해 정량미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개인 수입품

개별 소비세 면제

향수·녹용·로열젤리 등

같은 제품 다수 구입 땀 관세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줄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



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천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 원을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연합뉴스

항공서비스, 이용자 불만 급증

소비자연맹 접수 78% 증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가장 많아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5월31일 에어아시아 제스트 사이트에서 인천-세부 왕복항공권을 예약하고 81만6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예약 일주일 후인

6월 7일, 예약한 항공 스케줄이 변경돼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취소신청을 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2개월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2년 4579건에서 지난해 6214건으로 35.7%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한 불만 상담 건수도 4942건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

다 57.8% 늘었다.

이 가운데 항공 여객 서비스 불만이 79.4%(3924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버스(10%), 택시(4.9%), 철도(3.7%), 선박(2%)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관련 불만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9%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위약금·수수료 과다, 환급 지연, 연락 불통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6.4%로 가장 많았다. 운항취소나 지연출발 등 운송서비스 불만전이행(15.6%), 추가요금 청구 등 부당행위(11.3%)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외국계 저가항공사는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항공사 이용 전 해당 회사의 소비자불만 처리 정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연맹 측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